

합격을 부르는 학생부 스토리텔링 전략



지 상 범의
입시 토크

대한민국 대입의 정점인 서울대학교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을 두고 현재에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오해가 가득하다. '전 과목 1.0 등급'이나 '화려한 논문'이 필수라는 강박은 아이들의 학교생활기록부를 생명력 없는 기록으로 전락시키곤 한다. 그러나 서울대 입학 웹진 '아로리'가 공개한 합격자들의 지적 여정을 분석하면, 서울대가 찾는 인재의 실체는 결코 다듬어진 숫자에 머물지 않는다. 그들의 기록에는 정형화된 정답 대신 스스로 흐름을 자처한 인간의 치열한 학업적 발자취가 담겨 있었다.

합격을 부르는 첫 번째 열쇠는 '유불리를 압도하는 지적 용기'다. 많은 수험생이 등급 확보를 위해 인원이 많은 과목으로 회피할 때, 합격생들은 오히려 자신의 지적 갈등을 채워줄 수업을 정면으로 돌파했다. 아프리카 식량 문제 해결을 위해 전교에서 단 세 명만 듣는 프랑스어 수업을 자진 수강한 식물생산과학부 합격생, 시카

장애라는 제약 속에서도 수학적 논리를 깊게 다루려 심화 과학 과목을 모두 완주한 통계학과 합격생의 사례는 '진짜 학생'의 기준을 보여준다. 과목 선택은 점수 획득의 수단이 아니라, 자신의 지적 정체성을 드러내는 가장 확실한 자기소개서임을 명심하자.

두 번째는 교과서의 마침표를 물음표로 바꾸는 '탐구의 집요함'입니다. 합격생들은 수업 중 생긴 작은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 밤을 지새웠다. 콤퓨터 효과의 근사치 풀이에 의구심을 품고 드브로이의 물질과 이론을 가져와 스스로 증명해 낸 의예과 합격생, 푸리에 변환을 독학해 코딩으로 구현한 스마트시스템과학과 합격생의 기록은 압도적인 학업 역량을 증명한다. 'RNA 앵무새'라 불릴 만큼 특정 주제에 몰입하고, 실패와 오류를 숨기지 않고 그 원인을 추적하며 지식을 재구성하는 '메타인지' 역량이야말로 서울대가 가장 높게 사는 연구자적 태도의 정수다.

공동체 안에서의 '나눔' 또한 핵심이다. 농경제사회학부 합격생은 배운 내용을 친구들에게 설명하며 지식을 재구조화했고, 정치외교학부 합격생은 '수기 민주주의'

이론을 학교 공간 규칙 제정에 직접 적용하며 갈등을 해결했다. 리더십은 자리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성장을 위한 헌신에서 나온다. 친구의 부진을 돕기 위해 노트를 공유하고 그 과정에서 스스로의 지식이 더 명료해지는 기쁨을 느꼈던 진솔한 에피소드는 지성이 인성을 만날 때 일어나는 변화를 잘 보여 준다.

마지막으로 '독서'는 세상의 해상도를 높이는 뿌리다. 대입 미반영이라는 파고 속에서도 합격생들은 '자유론'과 '프린키피아'를 통해 지적 근력을 키웠다. 독서 흔적은 이제 특정 항목이 아니라 전 과목의 기록 속에 녹아들어 탐구의 질적 수준을 결정하는 척도가 됐다.

결국 서울대 아로리가 전하는 메시지는 자명하다. 학생부는 화려한 스펙 나열이 아니라 3년의 세월을 비추는 진실한 거울이어야 한다. 이제 질문의 방향을 틀어야 한다. "어떻게 하면 좋은 점수를 받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학문을 탐구할 준비가 된 진짜 학생이 될 것인가"라고 말이다. 매 순간의 진심 어린 탐구가 쌓일 때 당신의 기록은 별처럼 빛나게 될 것이다.

/SB진로진학연구소장.

팍스 아메리카나의 실질적 종말



기 지 수첩
서 예 진
(정치부)

"왜 우리가 다른 나라들을 위해 수년 동안 보살도 없이 해상 항로를 지켜줘야 하는가?"

2019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남긴 말이다. 당시 호르무즈 해협에서 유조선 공격 사건이 발생하자 이 같은 글을 남긴 것이다. 2026년 3월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일본 등 5개 국가에 균형을 파견하라고 요구했다. 그의 기본적인 인식을 생각하면 이런 요구는 놀라운 일이 아니다.

미국·이스라엘-이란 전쟁 초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의 상선들을 호위해주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을 조금이라도 오래 관찰했던 사람들은 이 말을 믿지 않았다. 국내 한 중동 전문가는 "분명히 한국이나 일본 등 동맹들에게 균형을 보내라고 요구할 것"이라고 사실상의 '예언'을 남기기도 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요구를 들어줘야 할까. 트럼프 행정부 1기 시절 미국이 이란 핵합의 탈퇴가 없었다면, 중동 긴장 상황은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다. 그럼 우리는 주유소에 기름 넣으러 가면서 겁먹을 이유도 없었을 것이고, 주식시장 상황을 보며 조마조마할 일도 없었다. 그러나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전형적인 책임 전가다.

그런데 아무도 선뜻 응하지 않는다. 20여년쯤 전 이라크 파병과는 아주 다른 분위기다. 그 시절 미국은 '세계의 경찰' 노릇을 했다. 하지만 지금 미국은 예측 불가능하고, 동맹에는 비용을 전가하고 있다.

미국이 '세계의 경찰' 지위를 유지하며 얻었던 지정학적 영향력과 달러 패권은 포기하지 않으면서, 그 유지 비용만을 동맹에 전가하는 것은 지독한 모순이다. '경찰 노릇'은 그만두면서도 '통행료는 내라'는 식의 논리로는 동맹의 호응을 얻을 수 없다. 미국의 동맹국들은 이 단순한 논리를 지난해 관세 폭탄 사태를 통해 이미 깨달았다. 미국과 동맹국 간 신뢰가 완전히 붕괴된 것이다. 그리고 미국이 '미국일 수 있었던' 이유도 사라지고 있는 셈이다.

호르무즈 해협을 향한 동맹국들의 망설임과 미적거림은 단순히 국익과 군사적 이익 등을 고려한 판단을 넘어섰다. 이 순간을 통해 우리는 지금 '세계의 경찰'을 자처하던 미국의 권위가 무너지고, 팍스 아메리카나가 실질적으로 종언을 고하는 장면을 보고 있을지도 모른다.

/syj@metroseoul.co.kr

재미로 보는 오늘의 운세 3월 19일 (음 2월 1일) 표준토리(www.fortunetory.com)

- 48년생** 유비무환이란 말을 명심하도록 하세요. **60년생** 남비와 사치를 버리세요. **72년생** 사회적으로 도움이 되는 일을 하면 길합니다. **84년생** 주변인들을 너무 믿는 것은 금물입니다.
- 49년생** 지금까지의 일을 고수하면 운이 따를 것입니다. **61년생** 유희에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73년생** 오늘은 근심할 때입니다. **85년생** 건강 악화 우려로 가족에게 근심하게 됩니다.
- 50년생** 지출을 조금 줄이도록 하세요. **62년생** 어려운 사람들에게 사랑을 베풀도록 하세요. **74년생** 성공과 실패 그 사이에서 있습니다. **86년생** 옛 것은 다 물리쳐 버리고 다시 시작하세요.
- 51년생** 조금만 참으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63년생** 지금 부와 명예의 길로 돌진하고 있습니다. **75년생**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87년생** 말 조심하고 건강에 신경쓰세요.
- 52년생** 너무 큰 욕심은 부리지 마세요. **64년생** 때로는 낭만적인 면도 있어야 합니다. **76년생** 가까운 곳으로 여행을 떠나는 것이 좋습니다. **88년생** 이성에게 배신을 당할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 53년생** 옛 친구를 만날 수 있는 날입니다. **65년생** 아주 반가운 손님이 귀하를 방문할 것입니다. **77년생** 조금씩 일이 나아집니다. **89년생** 성에 차지 않더라도 당분간 만족하고 자중하세요.
- 54년생** 평소와는 조금 다른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66년생** 모든 일에는 미리 준비가 필요합니다. **78년생** 여행은 이번보다는 다음에 떠나세요. **90년생**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용기입니다.
- 55년생** 모든 일이 전반적으로 잘 풀립니다. **67년생** 약간의 손실이 있을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79년생** 귀하의 능력을 평가받기에 좋은 기회입니다. **91년생** 행운의 숫자는 9번입니다.
- 56년생** 매사에 조금 더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68년생**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도록 하세요. **80년생** 앞으로의 노력은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92년생** 베푸는 마음을 가지도록 하세요.
- 57년생** 깊이 생각한 뒤 상대를 따른다면 즐거운 날이 됩니다. **69년생** 현금은 저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81년생** 즉각적인 실천이 필수적인 시기입니다. **93년생** 신중히 나아가야 성과가 있습니다.
- 58년생** 어려움 속에 빠져 있다고 해서 좌절하지 마세요. **70년생** 본인의 의지에 따라 성공여부가 나뉩니다. **82년생** 계획성이 모자라 위험에 빠집니다. **94년생** 뒷사람의 협력을 받게 됩니다.
- 59년생** 괴롭지만 고통을 내색하지 마세요. **71년생** 작은 일은 해결됐으나 더욱 큰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83년생** 공부에 집중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95년생** 이 성과의 값들이 우려됩니다.



김상회의四季 엘리자베스의 힘

영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군주를 꼽을 때 빠지지 않는 인물이 여왕 엘리자베스 1세다. 그녀는 왕이라는 자리에서 찬란한 영화를 누린 사람으로 보이지만 그녀의 화려한 초상화 뒤에는 태생부터 죽음의 문턱을 넘나들어야 했던 처절한 생존 투쟁이 숨어 있다. 엘리자베스의 불행은 태어나면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그 유명한 헨리 8세였다. 아들이 없었던 헨리 8세는 첫 부인과 이혼을 강행하고 앤 불린과 재혼했다. 앤 불린이 엘리자베스의 어머니인데 왕이 원했던 아들이 아닌 딸 엘리자베스를 낳았다. 실망한 왕은 앤 불린을 간통죄로 몰아 처형하고, 세 살이었던 엘리자베스는 하루아침에 어머니를 잃고 왕위 계승권도 박탈당했다. 이복언니 메리 1세가 왕위에 오르자 개신교 신자였던 엘리자베스는 반역 음모에 휘말려 런던탑에 갇히게 된다. 어머니가 처형당했던 그곳에서 그녀는 최대 위기에 처했다.

그러나 그녀는 극한의 위기에서 인간을 꿰뚫어 보는 통찰력을 길렀고, 타협과 기다림이라는 정치적 무기를 연마했다. 1558년, 메리 1세가 후사 없이 세상을 떠나자 결국 엘리자베스는 왕위에 올랐다. 당시 영국은 종교 갈등과 재정 파탄으로 신음하고 있었다. 고난 속에서 인생을 다진 그녀의 지혜가 빛을 발했다. 극단적인 종교 대립을 중재하며 국론을 모았고, 스페인의 무적함대를 격파하며 영국을 해상 강국으로 일궈냈다. 사람들은 성공한 군주의 모습으로만 엘리자베스를 기억하는데 진정한 힘은 왕위에 오르기 전, 고난의 시간에 만들어졌다. 그녀의 삶은 명리학의 절치부생을 떠올리게 한다. 끊어진 듯한 절벽 끝에서 오히려 새로운 생명의 기운을 만나는 뜻이다. 지금 고통 속에 있더라도, 그 시간을 어떻게 견디고 준비하느냐에 따라 찬란한 황금기로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화색 9X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리노이드의 월드파일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리노이드의 월드파일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4	7		2			
6		1			8			
	2	5		3		1		
9							4	1
	2				3			
7	1							5
		7		4		5	1	
		6			3			8
	5		8		1			

	8		5	4		2	9	3
			3	2		4		
				9		5	8	
7		4			2			
								1
				9		3		
	7	9		8				
		2		6	9			
8	5	6		3	4			7

9	8	7	1	2	8	6	9	2
8	2	6	8	2	9	9	7	1
2	1	9	9	7	2	2	8	8
9	9	2	6	8	8	7	1	2
6	8	8	7	1	2	2	9	9
1	7	2	9	9	2	8	8	6
2	6	1	8	8	9	9	2	7
7	9	8	2	6	1	8	2	9
8	2	9	2	9	7	1	6	8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206 2002년5월28일 제5874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978호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상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